

■ 남미지역의 곡물자원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문제

추 종 연

1. 곡물가격 폭등

요즈음 곡물가격은 시카고 곡물거래소(CBOT)에서 연일 상종가(Perfect Storm)를 기록하고 있다. 2008.5월 현재 쌀 현물가격은 톤당 930~1,100불 정도로 1년 전에 비해 약 2-3배 올랐다. 옥수수, 대두 및 밀의 2008.5월 인도분 국제 선물가격은 6개월 전에 비해 35-39% 인상되었다. 식료품값도 지난 3년간 83%나 상승하였다.

곡물가격 폭등 요인으로 ①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 증대, ②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③ 고유가로 인한 곡물생산비 및 물류비 상승, ④ 미국 등 주요국들의 바이오연료 장려정책, ⑤ 수출세, 수출할당제, 수출금지 등을 통한 곡물생산국들의 자원이기주의 또는 자원(곡물)민족주의, ⑥ 곡물 수입국들의 식량 비축, ⑦ 국제 투기자금의 곡물시장 유입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곡물 가격 상승 및 수요증대로 세계 식량 재고율이 위험수위까지 떨어졌다. FAO는 두 달 분 수요의 식량재고율(16-17%)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이는 15.3%로 떨어졌다.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애그플레이션)현상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은 51%로 이는 우리의 연간 생산 식량이 우리 국민의 반년 먹을거리 밖에 안 된다는 의미이다. 쌀, 감자, 채소류, 계란 및 해조류 정도만이 자급자족 가능하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약 28%로, 쌀 자급률은 95.3%, 밀 0.2%, 옥수수 0.8%, 콩 13.6% 그리고 보리는 46.5%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억불이 넘는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세계14위의 농축산물 수입국이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는 옥수수 855만 톤, 밀 367만 톤, 콩 134만 톤, 소고기 19만 톤 및 돼지고기 28만 톤을 수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안보(Food Security)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심각성이 가중될 것이다. 식량이 정치적 무기로 변모한 지는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면적 및 경작지로 인해 식량 생산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농촌의 공동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앞으로 외화가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요에너지의 98%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식량안보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광대하고 비옥한 토지, 막대한 잉여곡물, 다양한 기후, 풍부한 수자원, 양질의 노동력 등을 보유한 남미지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남미 국가 중 곡물생산량 및 생산량 확대 가능성이 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를 대상으로 콩, 옥수수, 밀 및 쌀의 생산현황과 현지 투자 여건을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관해 검토하였다.



브라질 마토그로수(Mato Grosso) 지방의 대두 수확 장면

3. 남미지역 4개국의 곡물생산 현황 및 전망

최근 브라질국립지리통계원(IBGE)은 브라질의 2008년도 곡물 생산량이 143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해 57백만 톤의 대두를 생산(세계 총생산의 24%)한 브라질은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대두 생산국이다. 아울러 브라질은 세계1위의 대두 복합물(콩, 대두박 및 콩기름) 수출국이기도 하다. 옥수수는 42백만 톤을 생산(2004년), 미국 및 중국에 이은 세계3위 생산국이며, 세계3위 수출국이다. 브라질 정부는 현재 작물시험의 90% 정도를 옥수수 싹종 개발에 할당하고 있는 등 옥수수 생산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반면, 브라질은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7백만 톤 이상의 밀을 수입하는 세계1위의 밀 수입국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580만 톤까지 밀을 생산하였으나, 근래 들어 대두 생산지가 확대되면서 밀 생산량이 240만 톤 내외로 급감하였다.

한편, 브라질은 세계10위 쌀 생산국으로 연간 약 7.7백만 톤의 쌀을 생산한다. 그러나 이 생산량만으로는 국내수요를 감당치 못해 매년 1백만 톤을 수입한다.

브라질은 남한 국토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미개발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면 곡물생산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브라질 경작가능 면적의 72%가 목초지인 만큼, 곡물 가격 변동 여하에 따라 이 목초지가 언제든지 곡물경작지로 변경될 수 있다. 2008년 5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식량생산 확대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곡물 최저수매가 상향 조정, 기상악화에 대비한 영농보험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UNCTAD는 브라질 농업의 잠재력과 지난 10년간의 성장추세에 주목, 향후 브라질이 세계농업의 핵심국가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평원은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및 미국 중서부의 옥수수지대(Corn Belt)와 함께 세계3대 곡창지다. 아르헨티나의 2008년도 곡물생산량은 1억 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및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대두 생산국인 동시에 또한 세계3위의 대두 수출국이다. 지난 해 475백만 톤의 대두를 생산하였으며, 대두는 통상 아르헨티나 곡물생산량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90%는 유전자변형 종자다. 아르헨티나는 대두 생산량의 대부분을 대두유 및 대두박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대두 생산량에 비해 수출량은 작은 편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해 21.8백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하였고 13백만 톤을 수출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및 중국에 이어 세계3위의 옥수수 생산국이며 세계2위 수출국이다. 밀은 12.6백만 톤



아르헨티나 팜파스 평원

을 생산하여 10백만 톤을 수출하였다. 쌀은 매년 1.2백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45-50만 톤을 수출한다. 아르헨티나도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향후 추가적인 곡물 생산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다. 특히 개간, 하천정리, 지하수 개발 등을 통해 경작지 추가 확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파라과이는 2006/07년에 5.8백만 톤의 대두를 생산하고 4.6백만 톤을 수출함으로써, 세계6위의 생산국 및 세계4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우루과이도 매년 12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70만 톤을 수출하는 세계6대 쌀 수출국이다. 파라과이나 우루과이 공히 국토면적의 1%미만을 상시 경작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곡물 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루과이는 2007년 1월 미국과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루과이 농산물의 미국시장 접근성이 제고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곡물분야에서의 대 남미 투자 여건

남미지역은 약 300년간의 식민지 지배기간 동안 유럽의 식량 공급지역할을 함에 따라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일부 족벌이 남미 전역에서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면적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기계화를 통해 기업농 방식으로 토지를 경작한다. 이들 대농 및 지주계급들은 보수 세력화하여 오랫동안 중남미 정계 및 사회 각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남미에서는 특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에서는 카길(Cargill), 번지(Bunge), 드레퓌스(Dreyfus), 비센틴(Vicentin) 등 다국적 곡물메이저와 일부 현지 대형 국내 곡물기업(아르헨티나 AGD 등)이 곡물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아울러 곡물메이저들은 자체적인 곡물 저장시설, 선적시설 및 항구와 가공시설을 갖추으로써 체계적인 곡물 유통망을 구축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마존 밀림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파라나(Paraná) 강변에 위치한 로사리오(Rosario) 시 근교에 곡물 및 식물성 유지류 수출 터미널이 밀집해 있다. 곡물 생산자들은 생산자 조합, 중간 유통 브로커 등을 통해 수출업자들에게 곡물을 판매하며, 통상 생산자들이 수출항구 또는 창고까지 운송비를 부담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간 유통 브로커들이 곡물저장시설의 45%를 장악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곡물거래는 57%가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와 같은 대형 매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데, 이 중 70% 이상이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며, 13% 정도가 생산자조합을 통해서 거래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브라질 경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과도한 조세부담과 복잡한 조세구조다. 브라질 소비자들은 물품구입가의 50%정도를 세금으로 지불한다. GDP대비 조세



파라과이 알토파라나에 위치한 카길 소유의 곡물 사일로

부담율도 36%나 되어 개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브라질 기업들이 연평균 2,600시간을 조세납부를 위해 사용한다고 보도(조사대상 177개국 중 최하위, 1위는 아일랜드로 76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2008.2월 조세 간소

화 및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아르헨티나는 국가재정확보 및 국내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주요 원자재(곡물, 석유, 소고기 등)에 수출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수출세는 아르헨티나 곡물생산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 농민들이 정부의 수출세 정책에 항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산 곡물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곡물가격이 양등하자 2008년 3월 11일 고정 수출세를 변동 수출세로 전환하였다. 대두의 수출세 스케일은 국제시장 가격에 따라 ‘23.5~49% 이상’으로, 밀은 ‘20~46% 이상’, 옥수수는 ‘20~4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와 같은 새로운 수출세 스케일에 의거 2008년 3월 현재 대두, 밀 및 옥수수의 수출세는 각각 44.1%, 27.1% 및 24.2%로 정해졌다.

남미국가들은 공히 노후화된 운송 망을 갖고 있어 앞으로 곡물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의 80%가 트럭으로 운송되며 단지 5%만이 철로를 사용한다. 그러나 도로의 40%만이 양호한 상태라 곡물 집산지를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 아울러 곡

물 저장시설도 부족하여 이 분야에서의 집중투자도 필요하다.

곡물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자 브라질 정부는 곡물 생산 확대를 위해 생산자들에 대한 제반 인센티브 부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대 브라질 직접투자액도 2007년 346억불로 사상 최고치 기록하였으며 특히 광물자원 및 바이오연료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브라질 헤알화 강세(현재 미화 1달러=1.67헤알)가 외국인의 대 브라질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생산 확대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수출세를 올려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 남미국가들의 노동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난제다. 만약 투자 업종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노동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남미지역에는 브라질 5만, 아르헨티나 2만, 멕시코 1만5천, 파라과이 6천명 등 총 10만명의 우리 교포가 거주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중남미에 대한 비즈니스 경험이 일천하므로, 남미지역 진출 시 우리 교포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류업으로 성공한 우리 교포사회의 유희자금도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

5. 우리기업의 대 남미 진출 문제

1) 곡물 직거래

우리나라는 매년 100억불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한다. 옥수수, 밀 및 콩 3개 곡물만 매년 130백만톤 이상을 수입하는 세계 농산물시장의 최대 고객의 하나다. 우리 수입업자들은 보통 입찰을 통해 메이저들로부터 곡물을 구입한다. 그런데 만약 응찰한 곡물 메이저들이 담합하는 경우 비싼 가격에 곡물을 구입할 수도 있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곡물거래소.
대부분의 아르헨티나산 곡물은 이
곳 거래소를 통해서 수출된다.

다. 또한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 발생한다면 메이저들이 우리에게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어 안정적인 곡물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곡물 수입업체(농협, 사료업체 등)들로서는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곡물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직거래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세계 곡물 작황에 대한 정보, 유통망 및 운송시설을 독점한 곡물 메이저들은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이나 생산자-최종소비자 간

곡물 직거래를 달가워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시도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은 남미시장 파악 및 지역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곡물거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곡물거래소는 마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곡물 거래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볼 필요가 있다.

2) 토지구입 및 곡물 생산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식량기지 확보방안 마련 지시하였다. 아울러 연해주, 동남아 등에서의 토지 장기임대, 북한 노동력 이용, 정부 부지확보와 민간경영 등도 언급하였다. 남미지역도 우리의 식량기지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주도의 농업이민이 실패한 경험도 있는 만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도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등 팜파스 평원의 비옥한 농지 가격은 헥타르 당 12,000~15,000미불(평당 미화 4~5달러), 팜파스 평원이 아닌 수도에서 원거리 지역의 경우는 헥타르 당 10,000달러 미만으로도 구입가능하다. 브라질과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토지는 아르헨티나보다 저렴하므로 중국은 농업 진출 대상지역으로 아르헨티나보다는 브라질을 선호한다. 파라과이 농지 가격이 브라질의 1/3 수준인 만큼, 파라과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는 기본적으로 농지구입 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시한다. 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외국인이 국경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 파라과이도 브라질 국민의 농업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경지대 토지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 중이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는 농장주들은 전문가(농업기사)를 통해 토지를 경작하는 만큼, 농사경험이 없더라도 곡물 재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곡물 재배 과정을 통해 현지 곡물시장 파악할 수 있으며, 생산된 곡물은 현지 생산자 조합이나 브로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 생산된 곡물을 한국으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현지사정을 보아가며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토지구입은 부동산투자라는 의미도 갖는다.

3) 사료 생산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라 남미에서는 목축지가 곡물경작지로 대체되고 있다. 목축지가 축소됨으로 인해 목장주들은 가축을 일정기간 동안 우리(feedlot)에서 사료로 비육시킨다. 이에 따라 가축사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이 사료생산 분야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사료용 옥수수수를 수입하는 대신 곡물 생산지에서 사료를 생산하여 이를 수입하는

게 경제성을 지닐 것으로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미에서 한국까지 선박운송료, 운송기간 동안의 사료보관 문제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에서는 사료원료인 대두박과 해바라기박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생산된 사료를 반드시 우리나라로 들여올 필요는 없으며, 이를 생산지나 인근 국가에 판매할 수 있다. 한편, 남미지역에서는 대부분 어류 양식업자들이 사료를 자가생산하고 있다. 아직 수요가 소규모이긴 하나 현지에서 어류 양식 사료를 생산하여 내수로 판매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버려지는 어류 부산물 확보도 용이한 만큼, 이 점도 어류 양식사료 생산에 유리한 점이다.

4) 농자재 및 농기계 생산

대부분 남미 국가들은 비료, 농약, 종자, 농자재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농기계의 정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미 현지에 농기계 생산 공장 설립도 검토 가능하다. 우선 양측 농업연구기관들 간 세미나 개최, 인적교류 등을 통해 이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농지 정리 및 확대

남미에서는 농지정리, 댐 조성, 하천유역 개발,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농경지를 얼마든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 곡물가격의 상승에 따라 남미지역 정부 및 농장주들은 농지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의 수자원 개발, 농지정리, 강 연안 개발, 해안 간척사업 등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 경험과 인적 자원을 이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우선 농지개발 및 관개 전문가들의 현장답사를 추진하고, 남미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2005년에 설치한 IDB 신탁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시 각각 5천만 달러의 지식협력 신탁기금과 빈곤퇴치신탁기금, 그리고 4천만 달러의 중소기업개발신탁기금 설치한 바 있다.

6.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남미 지역은 곡물 생산에 필요한 토지, 기후 등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농지도 개발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조세를 비롯한 각종 법규, 일부 족벌과 유착된 곡물메이저의 시장장악 등은 이 지역 진출의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남미 진출시 현지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철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